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사재기’ 논란과 베스트셀러



최성일\*

누가 그랬다. 역사는 두 차례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이고 두 번째는 희극적이라고. 우리 출판에서는 ‘사재기’ 파동이 꼭 그 짝이다. 새해 벽두 별안간 불거진

사재기 논란은 해프닝에 가까운 소극(笑劇)이다. 그러나 결코 우습지 않은 논란의 추이를 보자.

이번 사재기 논란은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구랍 27일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7곳에 공문을 보내 5개 출판사의 책 5종을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한 데서 비롯한다.

## 희비극

출판인회의가 사재기 의심을 사는 책들의 목록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교보문고의 지난해 12월 셋째 주 종합베스트셀러 4위와 5위였던 책이 넷째 주에는 나란히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빠짐으로써, 이 두 권을 펴낸 출판사 두 곳으로 의혹이 모아졌다. 또 두 출판사는 당연히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런데 사재기 의혹을 받은 한 출판사 대표의 하소연은 해명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자충수를 둔 셈이었다. “우리책의 경우 우리 회사 영업자가 친구에게 부탁해 24권을 한꺼번에 주문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사재기로 봐야 할지 억울하다.”(〈한겨레〉 2005년 12월 30일자 10면)

이런 게 사재기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사재기란 말인가? 아무튼 관련 출판사들은 자사의 베스트셀러 사재기 판정에 반발하여 원상복구와 사과를 요구하였고(〈한겨레〉 2006년 1월 5일자 11면), 교보문고가 “해당 출판사들의 반발을 방치하면 베스트셀러에 대한 의혹과 불신감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해” 이를 수용하면서 사재기 논란은 출판단체와 대형서점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한겨레〉 2006년 1월 25일자 12면).

이번에 사재기 의혹을 받은 어느 출판사는 동료 출판인들에게 보낸 자사의 입장을 표명한 글에서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은 명단에서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들만 걸렸다”는 얘기를 출판인회의의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한다.

이번이 사재기를 둘러싼 세 번째 논란이나 상대적으로 파고는 낮다. 두 번째 사재기 파동은 2001년에 있었다. 출판인회의는 2001년 6월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9월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들의 제목을 공개하고, 사재기의 정도가 심한 회원사 3곳을 제명한 바 있다.

**역사 혹은 원조**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 위해 일부 출판사가 자사의 책을 무더기로 사들이는 속칭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출판·서점계에 풍문으로 나돌았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 1주일 간 서울 시내 대형서점에서의 사재기를 집중 취재한 결과 사재기가 단지 풍문이 아닌 사실임이 확인됐다.”

〈도서신문〉이 사재기가 이뤄지는 현장을 포착해 실상을 폭로한 ‘출판사, 베스트셀러 조작’이라는 제하의 특집 기사의 머리글이다(1997년 12월 8일자). 사재기 현장추적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같은 사재기 현상은 서울시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가 자연판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판계뿐만 아니라 서점이나 도매상 등 유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출판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도 파장이 작지 않았다. 한동안 대형서점들이 베스트셀러 집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신문의 지면에서도 베스트셀러 난이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사재기를 둘러싼 출판·서점가의 자정 움직임이 다른 때보다 약간 길었을 뿐이지 얼마 안 있어 대형서점은 베스트셀러 집계 발표를 재개하였고, 신문의 베스트셀러 난은 원상 복구되었다.

출판계에 끼친 충격과는 이보다 훨씬 컸다. 사

재기 폭로 기사에서 사재기 행위가 확인된 베스트셀러는 서울시내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1~15위 안에 든 책들이었다. 책 제목은 밝히고 출판사 이름은 영문 이니셜로 표기했지만, 어느 출판사인지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한 출판사는 사재기 파동의 여파로 끝내 문을 닫기도 하였다. 다음은 〈도서신문〉이 전한 사재기 방식이다.

“이들 출판사는 각 서점별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하루치의 할당량을 부과, 사재기를 하고 있다. 사재기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주로 20대 중반의 남녀로 철저하게 점조직화되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구역에서만 책을 사재기고 있으며, 같은 책의 사재기를 자기 구역외의 서점에서 누가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재기에 동원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남녀노소가(따로) 없다.”

**베스트셀러 만들러**

출판사들이 비양심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까닭을 〈도서신문〉은 사재기가 책 판매에 광고보다 더 효과적인 때문으로 풀이한다.

“몇몇 중앙일간지들이 출판란에 특정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를 발표함에 따라 전국의 도소매상은 이를 근거로 책을 주문하게 된다는 것이 출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독자도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책을 고르고 있어 출판사의 사재기 욕구를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고 특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지만 하면 책을 많이 팔 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광고료 대비 사재기 비용의 편익을 따져 보자. 역시 <도서신문> 특집의 내용이다.

“일례로 한 중앙 일간지의 5단통 광고는 약 7백만원~1천만원, 6천5백원 정가의 책을 한 주에 최고 3백부(현재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는 4백부 선에서 이루어진다)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1백95만원. 그러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문학과 비소설은 서점에서 대부분 매절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가의 60%에 사들인다. 따라서 출판사는 정가의 40%(78만원)만 가지고도 3백부의 책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4주간 3백부씩만 산다고 해도 3백12만원대, 즉, 일간지 광고비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는 셈이다.”

사재기가 출판·서점가에 나타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라고 한다. 사재기 행위가 처음 불거진 90년대 후반에도 이미 “출판계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사재기를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부를 만큼 보편적인 영업행위의 하나로 치부해 왔다.”(<도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 하지만, 사재기를 놓고 마케팅 기법 운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겨레>(2006년 1월 16일자) 책 섹션의 커버스토리대로 “사재기는 사기다.”

## 2005 베스트셀러

유명해지려면 먼저 유명해야 하는 것처럼 책이 많이 팔리려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야 한다. 한밤 자고 일어났더니 단박에 유명해지는 경우

는 아주 드물다.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인공위성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로켓의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필수적이다.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출판인은 베스트셀러 붐 조성 단계에서 서평·입소문·광고 따위의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사재기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사재기보다는 ‘자연스런’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책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떳떳하고 바람직할 터이다. 또한 이것이 사재기 논란과 맞물어 2005년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려는 이 유이기도 하다.

교보문고(베스트셀러 종합 100·부분별 20), 예스24(종합베스트 500), 송인서적(베스트결산 1219)의 2005년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각기 대형서점, 인터넷 서점, 도매서점으로 성격이 약간 다른 서점의 특성을 나타내는 베스트셀러 목록

구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종합 순위 상위에 오른 책들의 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설이 그랬고, 외국소설은 더욱 그랬다. 아래는 서점 3곳의 종합 100위 안에 모두 들어있는 외국소설들이다. (예스24와 송인서적은 두세 권짜리나 시리즈물을 낱권으로 따로 집계하였으나, 여기서는 첫 권의 종합 순위만 적는다.)

- 『다빈치 코드 1』(교보 2위, 예스 2위, 송인 4위)
- 『모모』(교보 3위, 예스 4위, 송인 2위)
- 『연금술사』(교보 4위, 예스 5위, 송인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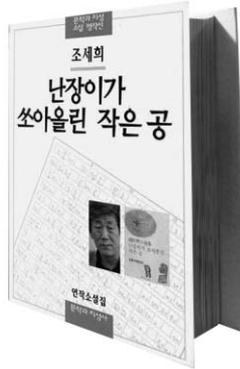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제6권 1』(교보 9위, 예스 10위, 송인 6위)
-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교보 14, 예스 46위, 송인 55위)
- 『어둠의 저편』(교보 17위, 예스 52위, 송인 33위)
-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교보 21, 예스 39위, 송인 13위)
- 『오 자히르』(교보 22위, 예스 77위, 송인 56위)
-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교보 23, 예스 30위, 송인 23위)
- 『진주 귀고리 소녀』(교보 29위, 예스 58위, 송인 40위)
- 『천사와 악마 1』(교보 32위, 예스 57위, 송인 32위)

11권이 서점 3곳의 베스트셀러 종합 100위 안에 모두 들어 있다. 이밖에도 파울로 코엘료의 『11분』(교보 77위, 예스 88위, 송인 108위), 안 마텔의 『파이 이야기』(교보 40위, 예스 29위, 송인 122위), 에쿠니 가오리의 『도쿄타워』(교보 51위, 예스 187위, 송인 117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교보 62위, 예스 192위, 송인 210위),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교보 95, 예스 22위, 송인 138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교보 81위, 예스 143위, 송인 66위), 그리고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예스 96위, 송인 51위, 교보 외국소설 20위·종합 110위권 추정)이 서점 한두 곳에서 종합 100위 안에 들었고 그 나머

지 서점에서는 200위 안 밖에 포진해 있다.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는 김별아의 『미실』(교보 19위, 예스 15위, 송인 16위)이 단연 돋보이고,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교보 24위, 예스 41위, 송인 18위)과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교보 28위, 예스 79위, 송인 14위)이 그 뒤를 잇는다. 서점 3곳의 2005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공히 탄취잉이 편저한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김명은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4)다.



꾸준히 읽히는 책과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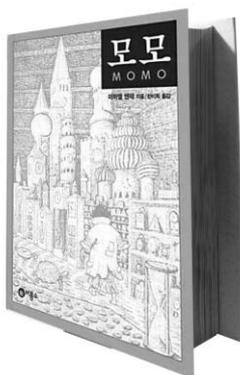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문학과 지성사, 1978)은 30년 가까이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 중의 스테디셀러다. 2000년 이성과 힘으로 간행처를 옮겨서도 세대를 뛰어넘는 독자의 뜨거운 호응은 식을 줄 모른다. 2005년 베스트셀러 종합 목록(예스 297위, 송인 50위, 교보 국내소설 12위·종합 110위권 추정)에서도 그 기세는 여전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유유정 옮김, 문학사상사, 1989)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도 건재하다.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아름드리, 1996)은 독자에게 첫선을 보이고 나서 강산이 한번 바뀌었다. 송인서적에

서 종합 76위를 차지한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박동원 옮김, 동녘, 1982)는 80년대 중반 학생운동권의 교양서로 널리 읽혔고, 새천년의 초입에는 TV 오락프로그램이 주도한 범국민 독서운동의 권장도서로 뽑히기도 하였다. 이 책은 1979년 동녘의 전신인 광민사를 통해 첫 출간되었다.

인기 드라마에서 제법 비중 있는 소도구로 사용되면서 지난해 한때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미하엘 엔데의 『모모』(한미희 옮김, 비룡소, 1999)는 30년 전에도 서울 을지로의 종이값을 한껏 올린 책이다. 『책이야기』(한겨레신문사, 1993)는 그 사연을 이렇게 전한다.



“독일에서 74년에 출간된 이 작품이 한국 독자와 만난 것은 77년 9월이었다. 차경아씨의 번역으로 청람문화사에서 나온 이 책은 예상외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모>라는 연극이 공연되었으며 ‘모모’ 티셔츠가 유행했고, ‘모모’를 간판으로 내건 분식집과 술집들도 생겼다. 비록 출전은 다르지만 ‘모모’라는 대중가요도 널리 불렀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김종철·김태언 옮김, 녹색평론사, 1996)가 송인서적 종합 93위를 차지한 것이 이채롭다. 새삼 대표적 환경관련서로서 이 책의 위상을 확인한다. ㉞